

학술조대석

중등교육에서의 레즈비언 불평등 탐색

글·여라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운동과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성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보한 한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담론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교육 이론 분야의 구성주의적 시각과 결합되면서 동성애자 청소년의 성성을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자신이 가진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간다고 봄으로써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 구도와 '정상성'의 규범을 해체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보여진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담론은 90년대 이후 미디어나 학문영역에서 주목을 받아 왔지만 교육에서는 간과되거나 배제되어 왔다. 이는 한국 사회에 동성애 커뮤니티가 형성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들의 세력 형성이 미미하다는 상황과 그럼으로써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사회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원인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동성애 금지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유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성성과 그것을 둘러싼 권력 관계는 외면한 채 섹스와 재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행 성교육 과정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성교육(Sex education)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학교 재량 시간에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마저 성(sexuality)은 순결을 강조하는 맥락 속에서 그 내용에서 빠져 있거나 금지의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성교육과 그 한 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동성애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eter Redman은 성교육에서 관계, 문화적 신념, 고정관

념, 권력 관계,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한 성교육이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의 성이 이성애적 가족주의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서로 다른 청소년들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성을 둘러싼 제반의 관계들이 빠진 '이성애적 가족주의'에 초점을 맞춘 성은

- 1) 두 부모와 자녀라는 핵가족의 전형과 나란히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성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의미, 가치, 느낌, 활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핵가족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성애적 성관계들의 실제적 다양성을 무시하며,
- 2) 전통적인 이성애 관계들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현실과 여성의 상대적 종속을 무화시키며,

3) 레즈비언, 게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이 외면함으로써 레즈비언, 게이들의 경험을 학교 공식 문화에서 주변화하고 그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즉 고정된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고정된 믿음에 준하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성애든, 레즈비언이든, 게이이든 간에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은 정부나 개인이 그것의 의도하든 안하든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지점이므로 반드시 공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10대 청소년들의 성 문화에서 확인되듯이 현실 속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0대들은 일반적인 성인의 기대 수준을 뛰어 넘은 지 벌써 오래이고 나름대로의 성성을 추구, 실현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레즈비언, 게이 청소년들의 성성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여지듯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정 비율은 레즈비언 혹은 게이로서의 성성을 갖고서 존재하고 있고 레즈비언, 게이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며, 성적 소수자의 성성을 갖고서 사회의 어느 부분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생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명제를 생각할 때



청소년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육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 되고 있는 10대 레즈비언, 게이 청소년의 존재 양태 역시 연구되고 앞으로는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아직 구체적으로 집단화되지는 않았지만 레즈비언, 게이 10대들이 학교 밖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가시화 시키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그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또한 이성애 중심적 교육 과정과 학교문화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이성애자로서 정체화되어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인간의 사회화가 주로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 영역은 서로 밀접한 연계를 이루고 있어 어느 한 영역에서의 과정만으로 성 정체성 교육의 영향력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 정체감 형성의 주요 매개체로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을 보려고 한다. 학교 교육의 틀 안에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명시물들인 교육 과정, 교사, 교과서 등이 있고 비공식적 학교 문화(이홍우, 1992)라는 비명시적 교육 과정(Hidden Curriculum)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의 구조 속에서 동성애를 긍정적인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서 학교 시스템과 관련한 10대 레즈비언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동성애를 발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중등교육 과정에 존재하는 동성애에 대한 불평등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 10대 레즈비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청소년들의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공교육은 또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1.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동성애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2. 중등학교 구조 속에서 10대 레즈비언

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학교교육에서 동성애 청소년들의 성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A.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산업 혁명 이후의 대중 학교 교육 성립은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안겨 주었다. 다수의 학생들을 정해진 기간동안 미리 정한 자료로서 당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 내는 기관으로서의 학교는 그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학교라는 기관의 이런 기능에 주목하여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탈학교 논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는 '변화를 가장 체계적으로 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목되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의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중 학교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들은 모두 학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학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겨진다. 첫째는 과거의 문화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학교의 보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현재의 사회 생활에 대한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케 하는 것으로 학교의 사회 적응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미래의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것으로 사회 재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과 사회적 지배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성성과 학교 교육에 대한 최근의 작업에서 가장 도전적인 논쟁은 학교가 성성과 관련된 이해와 실행들이 능동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명시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서 중요한 문화적 장소로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Debbie Epstein, 1994)

Peter Redman은 학교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개발 보급하는 맥락 속에서 이성애를 실행하는 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학교가 이성애적 성성만을 재생산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학교라는 기관이 10대들이 그들의 성성을 배우고 구성하는 속에서 레즈비언, 게이 정체성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이성애를 가치로운 사회적 위치에 직접적으로 놓음으로써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학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쟁을 성성 교육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학교의 성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는 그것을 의도하든 안하든 학생들이 성성에 관해 배우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인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Macan Ghail의 경우 현대의 학교 교육 체제는 능동적으로 차별적으로 위계화된 남성성 여성성을 생산, 재생산하며 성 정체성 역시 이러한 젠더(gender)의 양식 내에서 차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가 호모포비아, 이성애만 단순히 재생산한다고 규정해 버리면 거기에는 학교들이 책임을 면할 위험이 있다. 문제는 학교라는 기관이 사회의 '유지'와 '변화'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과 의사 결정일 것이다. 그리고 성성이 학교 교육과 다른 문화적 과정들 내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명시적, 잠재적 교육 과정이 젊은이들이 성성에 관해 배우는 중요한 매체로 인식된다면 그때 학교는 이런 성성의 구성 과정에 긍정적이고 유용한 기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성이 구성되고 학교교육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방식에 초점을 둔 관점은 동성애가 학교 구조 속에서 주 변화되고 이성애적 성성에 종속화 되는 복잡한 경로들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렇듯 학교 교육은 그것이 갖고 있는 유지와 적응, 변화라는 기능 때문에 성성 교육에 있어서도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안겨 주는 사회 구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B. 중등학교 성교육 과정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선정된 경험의 조직,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Tyler, 1949)으로 종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서의 학교 교육과정은 명시적 교육 과정과 비명시적 교육 과정(Hidden Curriculum)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명시적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 기술되어 문서화되어 있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말하고, 비명시적 교육 과정은 명시적 교육 과정 외의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행정 구조, 학교 문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의 틀을 갖고 볼 때 중등학교의 성교육 과정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명시적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교육은 현행 6차 교육 과정과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7차 교육 과정에

서도 공식적인 시간 배당이 이루어지는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Macan Ghail은 명시적 교육과정에서 성성이 결코 공공연하게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도 성성은 학생들과 교사들,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 하나의 스며드는 존재로 지속된다고 보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존재와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성교육 과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성화된 필요 교과목을 설정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학교 재량 시간을 활용한 선택적 과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해 성교육 과정을 운용할 수 있는 학교별 재량 시간이 영어, 수학 등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운용될 전망이어서 실제로 중등학교에서의 성교육 과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교육 과정이란 주로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성과 관련된 교과 내용이나 성교육 지침서, 그것을 교수하는 교사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교실에서 가르쳐야 할 유일한 자료로 '성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교과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대로 가르쳐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문화는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된 획일화된 교육 과정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 교사가 다른 유관 학습 자료의 사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학습 자료의 제한은 교육의 다양성 추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는 학생들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학생들에게 직접적, 간

접적으로 교사의 가치관을 전수할 뿐 아니라, 교사 자체가 학생의 동일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Porro와 Barbara의 반(反)성차별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행동, 교실 환경, 교육 환경 등이 성평등적으로 조절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는데 10대들의 성성 교육에서도 역시 교사는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C. 또래 집단

10대들의 성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장은 크게 가정, 학교 사회로 정리할 수 있다. 각각의 장에는 10대의 성성 발달과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 관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10대들의 사회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인 또래 집단은 그 속의 친구들이 강화자, 모델, 혹은 촉진자로 위치하면서 주요한 영향을 준다. 근접성, 동일성이 크게 작용하는 친구 관계는 청소년기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친구 관계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10대들에게 또래 집단을 둘러싼 친구 관계는 자신의 개성과 독특함을 지지, 지원해 주는 단위가 된다. 10대 남학생들이 언어보다는 스포츠와 같은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남성보다 감정적인 측면을 더 드러내면서 개인적 문제를 친구와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남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성과 관련하여 또래 집단 문화

는 더 큰 단위의 학교 문화, 사회 문화에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레즈비언들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사회적으로 가시화 되기 힘든 상황의 반영으로 10대 레즈비언들 역시 그 규모와 분포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고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지원자로 표본을 추출하는 「지원자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청소년 레즈비언 모임 구성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성인도 조

사 대상으로 설정하여



당 시기를 지내 온 성인의 관점에 무엇이 문제였고 당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응한 10대 레즈비언은 7명이며 성인 레즈비언은 13명이다.

본 연구는 크게 문헌 자료를 통한 교육 과정 분석과 면접 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문제 1을 위한 성교육 과정 분석은 동성애를 급하고 있는 고등학교 윤리와 교련 교과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발간한 '성과 행복'이라는 교재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학교 구조 속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연구 문제 2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갖고서 설문을 실시한 후 면담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 3을 위해서는 연구 문제 1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석된 내용과 연구 문제 2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sexuality) 배제 문제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성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IV. 결과

A. 중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

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제시되는 교과서와 자료들은 동성애를 다루는데 있어서 크게 2가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모든 내용이 이성애만을 전제하고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성애적 관계, 이성애적 가족 모델만 글과 그림으로 제시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의 성성과 삶의 양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둘째는 성을 정상, 비정상/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한 후 동성애를 비정상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와 성교육 지침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의 경우 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교과서로는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윤리와 교련이 있다. 1998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의 경우 Ⅱ.「사회와 윤리」 단원 중 3.「현대사회의 문제와 윤리」라는 소단원에서 (3)「성과 윤리」 부분에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성 도덕이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性)을 매개로 한 향락 산업이 번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신 매매범이나 가정 파피범이 늘어나고 있다. 에이즈, 동성연애, 매춘, 성폭행, 마약, 음란 비디오, 저질 만화 등이 늘어나면서 성 도덕의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성을 상품화하려는 상업주의에서 기인하며, 개인적으로는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 윤리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고등학교 윤리, p105-106)

또한 교사들에게 교과 내용을 지도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수업 전개와 계획>에서 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동성애를 성 도덕 문란의 예로 언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등학교 윤리 교사용 지도서, p154, 1997)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는 <참고 자료>에서는 성에 대한 입장을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보수주의는 성 그 자체를 위한 성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보면서 결혼 제도 속에서 생식과 관련된 성만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유주의는 성이란 서로 합의하는 성인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혹은 적어도 그들이 행하는 일이 자신에게 해롭지 않음을 알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자들 간에 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입장에서는 혼전의 성, 혼외의 성, 동성애, 특이한 성 기술에 의한 실험 등이 용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급진주의는 성의 목표가 쾌락이고 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새로운 성의 기술이나 성의 파트너와 실험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며 성행위가 기이하면 할수록 성적 쾌락이 증대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노출증, 가학 및 피가학증, 관음증, 수간이나 시간 등도

용납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 교사용 지도서, p165-166.1997) 교사용 지도서는 이처럼 교사들이 읽을 거리를 제공 하면서는 동성애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이성애 관계만을 전제하면서 성을 본능으로 규정하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전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 전개 계획에서는 성 도덕 문란의 한 실태로서 에이즈, 매춘, 성폭행, 마약, 음란 비디오, 저질 만화 등 부정적 가치가 개입된 개념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금해야 할 무엇'으로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역시 교육부에서 제작하여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고등학교 교련 교과서의 경우 Ⅷ. 「위생 및 간호」 단원의 5. 「인간과 성」에서 동성애를 독립적인 작은 단락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동성애는 자신과 같은 성에 대해서만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 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도를 지나친 성 도착증, 이상 성욕 등은 청소년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성 의식과 성 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교련 p268)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성병으로 예시한 에이즈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즈 감염은 에이즈에 감염

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동성 연애자, 무분별한 이성간의 성 행위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를 맞은 사람,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체에서 태어난 태아에게서 발견된다.’

(고등학교 교련 p268)

고등학생에게 교련이라는 교과는 그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며, 국가적으로는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나아가서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 교련 교과서, 교육부, 1996) 엮어진 교과목이다. 그리고 소단원인 5. 「인간과 성」 앞부분에는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에는 인체의 구조와 청소년의 생리 현상 및 성병 등의 내용에서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성적인 존재로서의 삶과 역할, 인간 세계에 관심을 두고 광의의 성교육이 요청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과의 목표나 성과 관련된 소단원 설정에 비쳐 볼 때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지식 없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공포를 반영한 일관성 없는 기술로 보여진다. 한 개체가 사회적 존재로서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고 성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0대를 성적인 존재로 분명히 인정하고 그들의 성문화와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성을 다루고 동성애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여전히 「바람직한 이성 교제」 혹은 「결혼」 등의 단락을 구성하여 철저히 이성애만 전제하면서 결혼을 ‘남녀가 결합하여 사회 생활의 기본적 단위

인 가정을 이룸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정의 내리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이성 교제’를 통하여 분별 있고 바람직한 성 습관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과서는 이성애적 재생산과 가족주의에만 초점을 맞추어 고정된 결혼 생활과 가족주의에 대한 가정된 믿음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지듯이 윤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련 교과서도 동성애를 성행위로만 연관시켜 이상 성행동으로 규정하고 에이즈라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교육 교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작하고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성교육 교재인 ‘성과 행복’에서는 동성애를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관련시켜 언급하고 있다.

‘...에이즈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성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문란한 성 행위를 삼가고, 동성 연애자, 약물 복용자, 매춘 행위자 등과의 관계를 피해야 하며 깊은 입맞춤도 위험하다...’

(성과 행복, 1998)

이 교재는 고등학생들에게 일정한 계획 없이 시간이 생겼을 때 5회 정도 다루어지는 것으로 여전히 이성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 생식 위주의 내용이며 자연스런 성성의 탐색과 성적 주체로서의 모습보다는 순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동성애를 여타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

것으로 묘사하여 동성애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기 보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과서와 성 교육 관련 교재들 소녀는 남자 친구를 가지기 시작하고, 소년은 여자 친구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기대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며 이성애적 관계 발달에 대한 이런 기대는 거기에 맞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적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성애자에게만 초점을 줌으로써 10대 동성애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이성애를 다루면서도 역할 모델에서 고정화된 성 역할 강조하며 그것의 습득만이 정상적인 발달로 간주하여 성역할 고착화를 통한 여남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학교 성 교육 과정이 10대 레즈비언에게 미치는 영향

1. 교과서

면접에 응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0대 레즈비언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학생 시기에 자신의 동성애적 성성을 인지한 상태였고, 학교에서는 윤리와 교련 시간 그리고 학교별로 간간이 이뤄지는 성 교육 시간을 통하여 동성애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들이 모두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사회적 악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런 내용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혹은 화나게 했으며 학교를 가기 싫은 곳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고 대답하였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동성애자인 자신을 교리에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조차 사회적 악으로 언급하고 있음에, 자신은 역시 비행자라고 적극적으로 의심하거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공고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 명의 경우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을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교과서의 성격을 간파하여 교과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객관적 인식을 보여주며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교과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면접에 응한 10대 레즈비언들이 자발적으로 또래 레즈비언 모임을 찾을 만큼 적극적이고 자신의 성성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동성애를 부정하는 교과서의 내용은 분노를 자아내게 하거나 냉소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교육 교재는 이들에게 '지루한 것', 혹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이런 응답은 성교육 교재가 이성애를 전제로 한 생식 위주의 내용이며, 이들 모두가 동의하고 체감하고 있는 10대들의 실질적인 성행위 비율이 40~60%인 현실에서 순결을 강조한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이들이 자신의 성성을 긍정하는데에 사용된 자료들은 학교 밖에서 접할 수 있는 책, 잡지 혹은 동성애자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들이었다.

면접에 응한 모든 10대 레즈비언들은 교과서가 동성애 관계, 동성애적 삶의 방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현행 교과서가 '사회 고정관념에 묶여 동성애를 나쁘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동성을 대상으로 한 자신들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것을 이성애와 공평하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성인 레즈비언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동성애와 관련된 언급을 접한 적이 없었으며, 접했다더라도 발달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한 내용이였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담론이 형성되기 이전에, 즉 동성애자가 사회에 가시화 되기 이전에는 동성애가 인간 사회에 '없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교과서에 언급될 필요조차 없었던 상황의 반영으로 보인다. 자신의 성성을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지금은 긍정하고 있는 성인 레즈비언들은 다만 현행 교과서가 동성애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이성애와 평등한 시

각으로 다루어 동성애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동성애적 삶을 가능한 삶의 한 양식으로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여 동성애자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교사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동성애 담론 형성에 영향을 받은 듯 면접에 응한 7명의 학생 중 6명이 동성애를 언급한 교사를 경험하였으며, 그중의 반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으며 반은 부정적인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동성애를 언급한 것은 주로 교과 내용과는 상관없는 장면이었으며 긍정적으로 언급한 교사들도 전격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기 보다는 사실을 스케치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도 레즈비언 당사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지지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교사에게는 '당신도 어쩔 수 없구나', '저 선생님은 무지하구나' 하는 냉소적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교사의 동성애를 비꼬는 태도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다.

자신의 동성애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교사와 상담해 본 경험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자신을 교사가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자신이 상담하곤 후 부모님 혹은 타인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리하여 오히려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성애 문제도 꺼려하는데 하물며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정신이상자 취급당할 것 같아서'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교사와 관련한 응답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성문제를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것은 여전히 일반적이지 않으며, 그런 분위기에서 동성애 상담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성인의 경우 면접에 응한 13명 중 4명만이 동성애를 언급한 교사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한 명만이 긍정적인 내용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부분의 성인 레즈비언들은 중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성성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고쳐져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의 10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동성애를 주제로 교사와 상담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시대 상황이 반영된 듯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은 동성애 이전에 성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당시의 학교가 입시 위주의 엄격함에 매여 있어 성 상담에 대한 언급조차 제기하기 힘든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레즈비언인 본인들에게는 본인의 성성이 비정상적인 아주 특이한 것이고, 엄격한 학교 분위기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교사나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지극히 사적인 존재 양태로 여기도록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3. 또래 집단

면접에 응한 7명의 대상들은 모두 자신의 성성을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있었으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 행복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획득하고 드러낸 대상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응답한 성인

레즈비언 13명 중 1명만이 당시에 성성을 친구에게 드러내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사뭇 다른 양상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의 10대들이 자신의 성성을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많이 드러내는 상황은 동성애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실과 개방화된 성담론 분위기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의 성성을 긍정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성인 레즈비언들과는 달리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10대 레즈비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당당함을 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성을 탐색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0대 레즈비언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내에서 유·무형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수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서 나오는 언어들이었고, 교실 내에서 동성애자로 지목되어 고립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런 폭력에 대하여 이들은 대부분 무력하게 참아 내거나 일부러 이성애자인양 행세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동성애자가 인지되기 시작한 상황과 이의 반영으로 학교에서도 동성애자로 추측되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사된 10대 레즈비언들의 경우 또한 학교내에 자신의 성성을 지지해 주는 은밀한 또래 집단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성성을 탐색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을 주고 받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 또래 집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학교 내에 지지하

또래집단과 함께 동성애자 커뮤니티 주변에 형성된 '또래끼리'와 같은 모임에 대단한 애착을 보여주었다.

레즈비언을 둘러싼 위와 같은 전적인 학교 환경은 10대와 성인 모두 약 30% 정도에게 자살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로써 생겨난 자신의 감정이 상대에게 수용되지 못한다는 것과 학교와 사회에서 비정상적 범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결합되어 절망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구조 속에서 이성애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되는데 반하여 동성애자인 자신의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이야기 될 수 없는 분위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을 둘러싼 학교 문화가 동성애자들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조사 결과 10대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성성에 대하여 긍정하게 된 것은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진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좋은 표현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을 경험하거나 스스로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된 이후 자신의 성성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되는 경로를 통해서였다.

7. 결론 및 논의

위의 연구 결과는 Jacqui Halson이 말했듯이 학교는 사회의 거울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학교 구조 속에는 이성애를 직,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학습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과정, 교사, 그리고 사회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호모포비아가 그 속에 존재하는 10대 레즈비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낳고 있었다. 직접적으로는 동성애를 에이즈와 관련시키고 이상 성행동으로 규정된 교육과정 내용이 자신의 성성을 의심케하거나 거부하게 하고 때로는 학교가 자신의 성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적극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간접적으로는 이성애적 관계와 삶을 다루는 맥락에서 동성애적 관계와 삶의 양식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중등학교 구조 속에 있는 레즈비언들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성애를 '없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성교육 과정을 경험하였다. 10대 레즈비언들은 자신의 동성애적 성성을 확인하고 긍정하기 위하여 학교 밖의 자료들을 자발적으로 탐색해 왔으며, 이성애만 제시되는 학교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참아내거나 애써 무시하면서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가 4년이고 아직은 형성 단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10대 레즈비언들의 가시화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10대 레즈비언들에게 집단화는 또래 집단의 기능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성성을 긍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동성애 전염론' 혹은 '파급론'으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나름의 또래 집단을 통하여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

를 기반으로 건강한 성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의 또래 집단이 소수자의 성성에 대한 지지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받쳐 주는 학교, 사회 문화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한 현상에서는 또래 집단을 둘러싼 친구 관계가 성적 소수자에게 지지 집단으로 존재하기 위한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면접에 응한 레즈비언들 중 성 정체성 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30%라는 점도 주목할 수치라고 생각된다. 연구 대상들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찾아온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연구 대상을 확대하면 이 수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자살 청소년들 중 약 30%가 동성애와 관련된 이유로 자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평등한 교육권에 기초한 동성애 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생식과 재생산이 중심이고 성성에 대한 내용마저 배제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성교육 현실 속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문화를 정확히 반영하여 성교육으로 전환될 때는 청소년의 다양한 성의 하나로서 이성애와 동등한 비중으로, 양성애 등 기타의 성성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성애 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어

는 한 부분을 포기하고 시작하는 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이 성립될 수 있는 학교라면 그곳에서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선택 사항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아동, 청소년의 성문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곁돌고 있는 것은 이제 교육자의 주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임신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객관적 지식 전달은 더 이상 어떤 교육적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아동, 청소년의 성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학습 받은 대로 혹은 자기만의 은밀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교육이 진정 교육적 힘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이 긍정적인 의미로 포함되어야 하고 동성애적 성 정체성도 동등한 비중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애적 재생산과 가족주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관계, 문화적 신념, 고정관념, 권력관계, 성 정체성 등 레즈비언 게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이 외면하는 것은 레즈비언, 게이들의 경험을 주변화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핵가족과 나란히 존재하는 많은 가족 구조들(편모, 편부가정, 소년 소녀 가정 등)이 있는데 이들의 삶의 양식마저 주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고정된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가정된 믿음에 기초한 내용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젊은 그룹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성성을 드러내

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한 의미, 가치 느낌, 활동을 설명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성문화 현실을 인정하는 열린 시각으로 학생들의 성성을 바라보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접근은 학생들에게 외면되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친밀감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청소년의 성을 걱정하며 성교육 지침서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달'로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정규 교과서에서는 '이상 성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레즈비언, 게이 청소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레즈비언 게이 청소년을 교육의 영역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성애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학습되고 특히 공식적인 12년의 긴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내면화되고 있는 현실은 성적 소수자들의 존재를 '없는 것, 나쁜 것'으로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성성을 발달시키고 있기에 교육이 이를 어떻게 수용, 제시할 것인가는 교육자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성성 구성과 재생산을 위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성성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 가능성을 제공한다. 서로 다른 개인과 그룹들이 다양한 욕구(성적 지향, 젠더, 민족, 계급, 나이, 불능)를 가진다는 사실의 솔직한 수용은 이것들이 학교들 속에서 전개되고 재생산된 것으로 보게 하고 동

시에 우리로 하여금 학교 안에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보도록 한다.(Debbie Epstein, 1994) 이런 의미에서 성성 교육 분야에 있어서 사회화 과정에서 구성되는 성성에 대하여 새로운 아젠다를 생각해 본다면 동등한 기회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성적 다양성, 그것을 둘러싼 성적 위계 혹은 권력관계, 학생들의 현실적인 성 탐색과 성문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등한 기회는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영향을 주어야 한다. 모든 성성 교육은 레즈비언, 게이 성성을 이성애와 동등한 가치와 비중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것을 선택의 문제, 자신을 조정해 나가는 것,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면서 세상에는 같은 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싸우려 하기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것이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서로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능동적인 선택을 가능케 하는 태도를 기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본 연구가 제반의 조건과 한계로 인하여 레즈비언으로서의 학교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하였지만 교육 정책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호모포비아에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필자 소개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동성애자, 장애인, 여성 등)들에 대한 내용이 초·중등학교에 공정하게 제시되도록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 작업을 '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소수자들과 더불어 신명나게 일하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